불자 세상보기

"국민단합 난국극복하자"

대학총장 300명 호소문 발표

전-현직 대학총장 3백여명이 한보사건 등으로 어지러운 현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12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대학총장들의 모임'을 가진 이들은 호소문을 채택하고 "우리 사회는 노동법 파동과 한보사건 등으로 총체적인 난국을 맞고 있으며 우리의 공동체가 깨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높아가고 있다"며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동참과 협력을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정치권에 대해서는 "정파를 초월하고 정쟁을 지양해 국민복리와 경제살리기에 초당적인 협력을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민들을 분노케 한 한보사건의 처리는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준엄한 사법적 심판을 받아야 하며, 법제도를 만들어 정치부패와 정경유착의 고리를 과감히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임에는 조완규 전서울대총장, 홍일식 고려대총장, 김진현 서울시립대총장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사교육비 "가정도 국가도 멍든다"

한해 20조원…공교육 제도개선 절실

과중한 사교육비는 계층간 소득격차로 인한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교육비증가는 결국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회문제이다.

과외를 시키는 가구의 비율이 93년 34.5%에서 96년 70.9%로 증가했다. 가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94년 16.8%에서 96년 19.5%로 증가했다. 지난해 사교육비 규모는 20조원(96년 교육부 국정조사 제출자료, 이 가운데 순수과외비는 6조7천억원)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올해 예산(71조4천6억원)의 30% 수준이다. 이러다보니 '과외경제'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12일 초-중-고생을 위한 과외전담 위성방송 8월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대책으로 사교육비의 획기적인 절감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미지수라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이다.

과외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만에 한정된 현상이 아니다. 서울대교육연구소와 한국교총이 4월 7일부터 15일까지 전국 4천6백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외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지역별 분포가 62.5%~74.1%로 고르게 과외를 받고 있었다. 시군 지역도 과외 수강학생이 30%를 넘어 과외가 전국적인 현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 한사람이 매달 평균 지출하는 과외비는 21만7천원. 서울의 경우는 37만8천원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과외비 마련을 위해 범죄를 저질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또다른 조사(현대경제사회연구원)에서는 방과후 학교에서 싼 값으로 특별활동이나 과외수업을 시킨다면 내 아이도 시키겠다는 응답이 81.6%로 나와 과외의 학교 및 공교육으로의 흡수에 대해 큰 기대를 나타냈다.

정성운 기자

불교의 눈 "물신 가치관 변해야"

김형증교법사(명성여고)는 "힘력위주의 사회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물신주의에 중독된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는 한 과외열풍은 좀처럼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삶의 의미를 물질보다 정신적 풍요에서 찾는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구비유경〉에서는 도(道)를 행함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설파하고 있다. "천장(千章)을 왼들 뜻을 모르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 경을 많이 왼다 해도 뜻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 한 뜻이라도 듣고 행하여 제도됨만 같지 못하다. 한 글귀를 알더라도 행하면 도를 얻는다."

또 안전 불감증 주민들이 행정당국에 붕괴 우려가 있다며 안전점검을 요구했으나 이상이 없다며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던 서울 성북구 돈암2동 한진아파트 축대가 14일 무너졌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났으며, 아파트 주민 2천5백여명이 긴급대피했다.

지계 — 금주 — 파계

서울시 청백리 뽑는다

●…서울시는 업무와 관련된 업자나 단체의 유혹에 의연히 대처하고 성실한 자세로 근무하는 공무원을 매년 1~2명 선발해 '서울 청백리'로 선정키로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시는 엄정한 심사를 위해 별도의 민간심사위원회를 두어 올 연말쯤 청백리를 뽑을 계획이다.

'나부터 개혁' 단체 발족

●…'나를 반성하고 남은 칭찬하자'는 구호를 내건 '나부터 개혁실천연합'이 30일 창립된다. 이 단체에는 전북지역 대학총학장, 병원장을 비롯 시민 등 3백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창립대회 때 '국민칭찬대회'도 열 예정이다.

노인성질환 무료 치료

●…대전에 노인들에게 무료로 질병을 치료해주는 경로병원이 생긴다. 사회복지법인 한국경로복지재단(이사장 서윤식)은 23일 대전시 석봉동에 '신탄진경로의원'을 열어 본격 진료활동에 들어간다. 66평 규모에 내과 일반외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등 4개 전문과를 갖춘 이 병원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진료비를 받지 않고 고혈압 당뇨 등 노인성질환을 치료해준다.

교수가 中企 기술지원

●…전문대학 중소기업 기술지원협의회가 지난 2일 창립되어 산학협력이 추진중인 가운데 서울시립대 재료공학전공 교수가 납땜기계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기술지원을 해주고 있다. 정교수는 작년부터 인천 일특엔지니어링과 함께 반도체기판을 납땜하는 최첨단 납땜기를 개발하고 있다.

지자체 연대 환경대처

●…서울 인천 경기 충북 강원 등 5개 지자체 환경관련 실무자들은 13일 '환경분야 실무자회의'를 갖고 시도간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각종 광역 환경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따라 환경비용 분담 기준안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거리의 스승'에 카네이션

●…경희대 총학생회(회장 박정윤)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30년간 경희대 교정 안팎의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주워온 78세의 전직 초등학교 교사 김남식씨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었다. 학생들은 "강의실에서 직접 배우지는 못했지만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김선생님을 '실천의 스승'으로 모신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학대받는 아동 4만명

●…우리나라에서 신체적 정서적 성적으로 학대받는 아동이 4만여명에 달하고 있느나 이들을 위한 시설은 3백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눔의집 청소년상담소 이상순소장은 13일 아동학대예방 세미나에서 이같이 발표하고 국가적 보호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콩나물서 또 농약검출

●…경기도는 10일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중 불법 농약을 쓰거나 함량이 기준에 미달되는 불량식품 5개를 적발, 제조정지와 고발 조치를 취했다. 콩나물에서는 사용금지된 농약잔류물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13일 수질기준치를 초과한 청암샘물과 강화해암샘물에 대해 제품의 폐기처분토록 제조지 자치단체에 의뢰했다.

아파트 베란다높이 낮다

●…13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서울 부산 분당 일산 등 9개 도시 집단주택 안전실태를 점검한 결과, 아파트 베란다 난간의 높이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기준 1백10㎝에 미달된 곳이 조사대상의 36.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2년부터 지난 3월까지 아파트에서 어린이들이 추락한 사고(자살 및 화재 추락사고 제외)는 52건이었다.

골프장 농지 편법매입

●…골프장을 증-개축하기 위해 농지를 편법매입하고 산림을 훼손한 골프장 대표들이 15일 검찰에 구속됐다. 구속된 레이크사이드 은화삼 태광골프장 대표들은 산림의 무단벌채와 골프장 용도를 호화주택으로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행원 대출자금 빼돌려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9일 고객명의를 도용, 대출금계좌를 만든 뒤 컴퓨터단말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13억여원의 은행 대출자금을 빼돌린 주택은행 광명지점 대출담당직원 정모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70여차례에 걸쳐 13억6천7백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 과거옹호 세력 확산

●…일본 극우파 지식인들의 글을 모은 〈일본에서 가르치지 않는 역사〉가 80만부 이상 팔리는 등 일본의 과거를 옹호하는 세력이 확산되고 있다고 LA타임스지가 9일 도쿄발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과거옹호'를 지지하는 세력은 일본사회 각계를 망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론

과외, 학생도 원하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지출한 사교육비 총액은 약 20조원이라고 한다. 가뜩이나 국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 고건 국무총리는 서울대총장을 비롯한 대학관계자, 고등학교 교장, 학부모 등을 총리공관으로 초청하여 과외제도 개선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그런가하면 국회에서 열린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동대책회의'는 안병영 교육부 장관을 초청 '과열과외 완화 및 과외비 경감대책'을 청취하는 등, 정부는 여러방면에서 과외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암기시험이 낳은 폐해

그러나 과외를 보는 학부모의 입장은 정부의 입장과는 다르다. 정부가 과외비를 불필요한 투자, 낭비로 보는 경향이 강한데 비하여 학부모들은 대부분 투자한 것만큼 효과를 거두는 생산적인 투자로 보거나 그렇게까지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자녀교육을 위하여 불가피한 투자로 본다. 시각차가 이토록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것이어서 정부의 관점에서 취해진 백가지 처방이 학부모에게는 아무런 설득력을 지니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박 부 권
〈동국대교수 · 교육학〉

사고능력보다는 암기능력에 의존하는 오늘날과 같은 시험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십중팔구 과외공부는 앞으로도 계속 시험성적 올리는데 효과를 가질 것이다. 자신의 분야에 정통하고 있는 교사라면, 그가 가르치는 교과내용 중에서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그 부분이 시험문제로 출제된다면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를 알 수 있다. 또한 좀 더 부지런한 교사라면 여러 유형의 교과서와 문제집 속에 나타난 다양한 문제 유형을 분석하여 그 문제들을 푸는 방식을 학생들에게 기계적으로 숙달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에는 학교의 교사들보다 학원강사들이 훨씬 더 열의를 갖는다. 그러므로 보통의 학생들도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 강사들이 시키는데로 따라가기만 하면, 그가 혼자 노력하여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바로 과외공부의 비밀이 있다.

이런 방식의 정답 알아내기 훈련이 갖는 문제는 학생들에게 정작 필요한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그 방식은 학생들로 하여금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고, 한 문제를 붙들고 끈질기게 파고드는 집요함과 거기에 필요한 인내심을 길러주지 못하며, 쉽게 포기하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습관을 길러준다. 그러므로 과외공부가 나쁜 것은 과외에 돈이 지출되기 때문이 아니라, 시험점수 올리는데 급급한 나머지 학생들을 지적으로 황폐화시키기 때문이다. 과외공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교육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문제삼을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 정부예산의 반을 넘는 액수를 과외수업비에 투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돈으로 우리의 2세들이 더욱 현명해지고, 더욱 사려깊게 되고, 더욱 인간답게 된다면 그 돈의 액수가 많다 하여 아깝다고 할 수 있겠는가? 동일한 맥락에서 어머니가 반찬값을 줄이고, 아버지가 자신의 용돈을 줄여 가계수입의 상당액수를 자녀의 과외비로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그 과외비로 인하여 공부에 더 흥미를 느끼게 되고, 가치있는 지적 훈련을 쌓게 된다면 어찌 그 지출이 아깝고, 그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궁핍이 문제될 수 있는가?

'과외공부'는 그것을 정부처럼 '경비'를 절감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학부모들처럼 자녀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는 한 우리는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러므로 '과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교육적인 안목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교육 권위회복해야

정부 스스로 이 문제를 정치적, 경제적 논리로 보는 타성에서 벗어나, 그것을 교육적 안목으로 보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과외공부를 시키기 전에 그것이 자녀들의 지적, 도덕적 발달에 줄 수 있는 심각한 폐해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선 교사들은 적어도 자기가 가르치는 교과에 대해서는 정통하여 교육의 주도권을 학원강사와 과외교사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대학들은 학교의 명예와 자존심을 내세워 수학능력시험 점수 1~2점을 다툴 것이 아니라 민족의 대학답게 왜곡된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육을 바로잡는데도 공헌할 수 있는 대학입시제도를 도입·시행해야 할 것이다.

성하출판 TEL:778-6826/7 FAX:778-6828

"생각없는 생각의 묘함으로서
끝없이 신령스런 불꽃을 숙고하여
존재의 근원에 돌아오면 둘이 아닌 원칙인
성품과 그 형상이 항상 머무르니. 이것이 참부처님이다."
-「중국의 작은 부처 앙산」중에 -

"어디가 참부처님이 계시는 곳입니까?"

「중국의 작은 부처 앙산」은 선(禪)에 대해 말하고 있다.
선이란 무엇인가? 이 책에선 '그저 지켜 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을 터득하는 방법을 담고 있다.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현대인에게 깨달음을 주는 「중국의 작은 부처 앙산」의
진수를 경험해 보자!
그저 지켜볼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이미 당신은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작은 부처, 깨달은 자로 존재할 것이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김화영 옮김 / 값 6,500원

앙산 (仰山)
위산의 법제자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손가락 두 개를 자르고 출가했다.
마조선사의 많은 선 지식을 두루 만나 법을 구하였고,
담원을 만나 혜충국사의 원상법문을 전해 받았는데,
한 번 보고 단박에 깨쳐 그 자리에서 태워 버렸다.
스승 위산에게 머물면서 진리를 깨친 그는 중국의 소석가로
불릴 만큼 출중하였으며, 후에 스승과 더불어
중국 오가종(五家宗)의 하나인 위앙종의 문을 열었다.

중국의 작은 부처
앙산

여기,
다시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달마의 벼락 같은 목소리가 있다!

송대 임제종의 원오스님이 운문계의 선사인 설두스님의 송고집에 평과 해설을 붙여 만든 〈벽암록〉은 종문제일서라 불리며 선서의 왕좌를 차지 한다. 성철스님께서 "벽암록을 읽으면 모든 알음알이가 딱 끊어진다"고 격찬한 선서의 백미이다.

살아있는 선
오쇼 라즈니쉬 강의 / 류원장 옮김 / 값 9,000원

인류 최고의 사상인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질 때,
인도의 스승들은 불교의 정수를 모아 42편의 시로 구성하였다.
오쇼 라즈니쉬는 특유의 페이소스 넘치는 우화를 곁들여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42장경
오쇼 라즈니쉬 지음 / 황광우 · 이경옥 옮김 / 전2권 / 각권 값 7,500원

CREATIVE MOO AD